

연구논문

가구 내 정치성향과 투표참여 의사의 이질성에 관한 연구

민인식*

본 연구는 2016~2024년 NaSTaB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의 가구 내 정치성향·투표참여 의사 이질성의 시계열 변화를 분석하고, 가구 특성 요인이 이러한 이질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정치성향 및 투표참여 의사 이질성은 가구원 간 이념·투표 태도의 절대적 차이 평균으로 산출되며, 두 지표 모두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다. 패널 토빗모형 분석 결과, 가구주 연령은 정치성향 이질성에 역U자형 효과 그리고 투표참여 의사 이질성에는 지속적 감소 효과를 나타냈다. 가구소득은 정치성향 이질성을 완만하게 증가시키는 반면, 투표참여 의사 이질성은 오히려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 유무는 두 이질성 모두를 크게 높였고, 가구주 성별·교육수준·배우자 유무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핵가족화와 세대 간 동거 감소가 가구 내 이질성 감소를 촉진하며, 온라인 플랫폼 확대·경제적 불안정성이 병존하는 상황에서, 정책 수립자는 가족·커뮤니티 차원의 건전한 정치토론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장벽을 완화하여 '건 강한 이질성'을 유지함으로써 세대 간 정치·사회 통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가구 내 정치이질성, 정치사회화, 투표참여 이질성, 패널 토빗 모형

* 경희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 교수 (imin@khu.ac.kr).

I. 서론

1. 연구 배경

정치사회화(political socialization)는 개인이 정치적 가치, 태도, 행동 양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일컫는 개념으로 Hyman(1959)에 의해 최초로 제시되었다. 전통적으로 이 과정에서 가족(family)은 자녀에게 선거참여 경험, 정당 선호, 시민의식 등을 암묵적·명시적으로 전달하는 핵심 매개체로 여겨져 왔다. 특히 2025년 6월 치러진 제 21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부부 또는 부모-자녀 간 서로 다른 정치성향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사례가 보고되었다.¹⁾ 이러한 사례는 ‘정치사회화’가 가족 내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21대 대선의 출구조사 결과, 20대 남성 유권자는 전 연령층·성별을 통틀어 특정 후보에게 과감한 지지를 보였다.²⁾ ‘세대 간 정치 인식 차이’가 가구 내 소통 구조뿐 아니라 정치참여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암시한다. Wike et al.(2025)의 글로벌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응답자 중 66%는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빈부 격차가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이 82%에 이른다. 이 결과는 사회·경제적 불안과 세대 간 불평등이 정치적 태도 형성과 투표참여 의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한다.

과거와 달리 가구 내 정치담론은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녀에 전달하는 흐름에서 벗어나 부모와 자녀를 넘어 조부모·손자녀까지 포함하는 다세대 간 상호작용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Lindgren & Oskarsson 2022). 동시에 2000년 이후 개인주의 확산과 더불어 핵가족화가 가속화되면서 전통적 가정 내 정치사회화 채널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분산되고 있다(송원숙 2018; 홍재우 2012). 이러한 변화는 ‘가족 중심 정치담론’이 점차 약화되는 양상과 맞물려 가구 내 정치성향 동질성 및 투표 참여 의사 동조 현상이 과거와 달라질 가능성을 제기한다.

1) [경찰,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 송치...남편은 불입건]
<https://www.yna.co.kr/view/AKR20250605028500004?input=1195m>

2) [남성은 ‘이준석’, 여성은 ‘이재명’...20대 男女 표심 왜 엇갈렸나]
https://www.nocutnews.co.kr/news/6351288?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0606094631

또한 21대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미디어·온라인 플랫폼의 역할도 주목할 만하다. 1995~2007년 출생한 20대 이하 남성은 학교·인터넷·포래를 통해 형성된 정치적 가치를 온라인 공간에서 공유하고 그 결과 대선에서도 보수·진보 양당 구도를 벗어난 제3후보에 대한 지지가 두드러졌다.³⁾ 이들은 부모 세대가 전통적으로 겪어 온 정치사회화 경로에 의존하지 않고 가정 외부 경험을 가정 내 대화로 다시 전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송인숙 2019). 따라서 한국의 정치사회화 연구는 더 이상 부모⇒자녀 단일 경로에만 머물 수 없으며 2025년 대선에서 나타난 ‘세대 간·가구 형태 간’ 정치성향과 투표참여 동질화 과정을 통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목적과 내용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s: NaSTaB)라는 대규모 가구·가구원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6~2024년까지 동일 가구 내 (투표권이 있는) 가구원의 정치성향 및 투표참여 의사 정보를 연도별로 추적·분석한다. 특히 가구 내 정치성향 이질성(political ideology heterogeneity)과 투표참여 의사 이질성(voting participation heterogeneity) 변수를 정의하고 생성한 후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 한국 정치사회화 연구의 한계(가령, KGSS 등 개인 단위 조사)에 대응하여 NaSTaB 패널데이터를 활용한다. 이를 통해 동일 가구 내 모든 성인 가구원의 정치성향 및 투표참여 의사를 연도별로 관찰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부모⇒자녀 모델에서 드러나지 않은 다양한 가구 특성 변수의 역할을 통합적으로 규명한다.

둘째, 한국 사회에서 급격하게 진행된 핵가족화와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가구 내 세대 동거 감소’가 정치성향 이질성 변화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조부모·부모·자녀 등 여러 세대가 동거하는 가구보다 1~2인 핵가족 비중이 높은 가구에서 정치성향 이질성이 더 빠르게 감소하는지 NaSTaB 패널데이터와 패널 토빗모형을 통해 검증한다. 또한 가구소득 등 경제적 요인(SES)이 가구 내 이념적 다양성과 투표참여 의사의 동질화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함께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 단위 포괄적 정치사회화’ 관점을 제시하고 개별 연구가 제시해 왔던 조부모⇒손자녀(Gidengil et al. 2017; Lindgren & Oskarsson 2022), 부

3) [[여의춘추] 20대 남자 유권자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49110798&code=11171212&cp=nv>

부 상호작용(이재욱 2018; Muxel 2018) 그리고 형제자매 간 정치성향(Lahtinen et al. 2019) 등 여러 세대 및 관계망의 효과를 하나의 통합된 틀 안에 결합한다. 이를 통해 가구 내 정치사회화 경로가 어떻게 다차원적으로 얽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대규모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가구 내 정치성향 이질성과 투표참여 이질성을 동시에 측정 및 모형화함으로써 기존 설문조사(KGSS 등) 한계를 극복하고, 단순히 개인의 진보·보수 성향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이질적 경향성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분석을 시도한다.

가구 내부의 정치적 불일치는 단순한 ‘이념 거리’ 이상의 함의를 지닌다. 첫째, 가족은 정치사회화의 최초의 장(場)이므로 서로 상충되는 관점을 일상적으로 경험할 경우, 다양한 의견 나눔과 관용 학습이 촉진될 수 있다(Mutz 2002). 동시에 교차 압력(cross-pressures)은 정치 효능감과 실제 참여를 약화시킬 위험도 내포한다(Huckfeldt & Sprague 1995). 둘째, 가족은 정치 갈등이 가장 밀착해 표출되는 공간이기에 구성원 간 협상 방식이 사회 전반의 갈등 관리 능력을 가늠하는 거울이 된다. 셋째, 이러한 미시적 불일치가 누적되면 정당 지지 패턴·세대 간 가치 전승 방식까지 변형시켜 거시적 양극화의 토대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가구 단위 이질성을 계량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은 개인 수준 참여 연구와 사회 수준 정치 양극화를 잇는 중요한 매개 고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II장에서는 가구 내 정치사회화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를 정리한다. III장에서는 NaSTaB 패널데이터를 소개하고 실증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 정의와 기초통계량을 제시한다. IV장에서는 패널 토빗모형을 활용하여 2016~2024년 가구 단위 정치성향 및 투표참여 이질성의 종속변수화를 수행하고, 가구레벨 요인이 이들 이질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V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II. 가구 내 정치사회화 관련 선행연구

본 장에서는 ‘가구 내 정치사회화’ 현상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특히 가구 구성원 간 정치성향과 투표참여 의사의 상호작용 및 공유 메커니즘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부모⇒자녀 경로에 집중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연

구에서는 가구 전체(부모, 자녀, 부부, 조부모) 구조에서 세대 간 상호작용이 정치성향 형성 및 정치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1. 정치사회화 개념과 가족의 역할

전통적으로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가족(family)으로 간주되어 왔다. 가족은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정치적 관점, 정당선호, 시민의식 등을 자녀에게 암묵적 혹은 명시적으로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수행한다. Jennings & Neimi (1968)은 부모의 정치참여 및 정당 일체감이 자녀의 정치성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이후에도 Beck & Jennings(1982); Jennings et al.(2009); Gidengil & Wass(2016) 등은 부모-자녀 간 정치성향 동질성(parent-child congruence)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가족 내 정치사회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사회 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으로 부모의 모델링(modeling)과 관찰(observation)이 자녀의 정치참여 및 태도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Muxel 2018). 예컨대 부모가 선거에 참여하거나 정치 뉴스에 대해 토론할 때 자녀는 이를 통해 ‘시민의 의미(civic duty)’와 정파 정체성(political identity)’을 학습한다. 다른 하나는 ‘지위 계승 이론(status transmission theory)’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가 자녀의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Brady et al. 2015). SES가 높을수록 자녀는 가정 내 정치·사회 논의에 더 자주 노출되며, 그 결과 정치참여 의사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두 이론은 상호보완적이며 실제로 부모의 정치 관여뿐 아니라 ‘경제적 자본’ 공유가 자녀의 정치참여 역량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Verba et al. 2003).

기존 연구는 대부분 부모 ⇒ 자녀 단일 경로에 집중되어 왔다. Mare(2011)는 이와 같은 2세대(two-generation) 접근법이 세대 간 계승의 다양한 경로를 간과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부모만을 매개로 가정하면 조부모나 그 이상의 세대가 행사하는 ‘잠재된 영향력’을 포착하기 어렵다. 실제로 Clark & Cummins(2014)의 heritability model에 따르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회·문화·유전적 요소가 부모 세대를 거쳐 손자녀에게 일정 부분 전달되지만, 부모 세대만 통제하면 이러한 영향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통적 2세대(부모-자녀) 모델만으로는 세대 간 정치성향 지속을 과소추정할 위험이 존재한다.

2. 가구 내 정치사회화의 다차원적 측면

최근 연구에서는 확대가족(extended family), 특히 조부모가 손자녀의 정치참여 및 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Gidengil et al.(2017)은 핀란드 데이터를 활용해 조부모 투표율과 손자녀 투표 의사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부모 세대 투표율을 통제한 뒤에도 조부모 투표율은 손자녀 투표율을 유의하게 예측함을 밝혀냈다. 이 연구는 부모를 매개하지 않은 ‘직접 전달(direct transmission)’ 가능성을 제기한다. Lindgren & Oskarsson(2022)은 스웨덴 행정데이터를 통해 조부모-증조부모까지 포함한 4세대에 걸쳐 투표 패턴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특히 조부모 세대는 ‘시간 자본(time capital)’과 ‘경제적 자본(economic capital)’을 손자녀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Putnam(2015)은 조부모 세대의 건강·자산이 상위층 가구의 손자녀에게 ‘경제적 자본 보강’을, 하위층 가구의 손자녀에게는 ‘시간 투자’를 통해 각각 작용하여 세대 간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조부모가 정치참여에 적극적인 경우, 직접적으로 손자녀의 정치사회화에 관여할 여지가 높다.

가구 내 정치사회화는 ‘부부(couple) 간’ 상호작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재욱(2018)은 결혼 이후 배우자 정치성향 동조 현상이 나타난다고 논의하였다. 이러한 동조 압력(conformity pressure)은 부부가 동일 정당이나 이념을 지향하도록 심리적·정서적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배우자 간 정치적 대화가 많을수록 부부의 정치성향 일치도가 높아져 가구 내 정치성향 이질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Muxel(2018)은 프랑스 청년층을 대상으로 부부 형성 전후 정치성향 변화를 추적하였다. 그 결과 부부가 공동으로 정치이벤트(가령, 지방선거)에 참여할 때 상호 정치적 정체성을 재형성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가구 내 정치사회화가 성인기에도 지속된다는 점을 시사하며, 특히 여성 배우자가 정치담론을 주도할 경우 남성 배우자도 정치적 관심을 높이는 현상이 관찰되었다(김도경·박영애 2011).

형제자매(siblings) 간 정치사회화 역시 주목할 만하다. Lahtinen et al.(2019)은 핀란드 청년 데이터를 통해 ‘형제자매 간 투표 유사성’이 유의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부모의 SES와 정치성향이 동일하더라도 형제자매가 자주 정치토론을 나누면

서로 비슷한 정파정체성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논의하였다. 또한 또래 집단(peer group)도 가구 외적인 정치사회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송인숙 2019). 한국 중·고등학생(13~18세)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 친구, 미디어 변인은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족 변인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영향력을 보였으나 또래 경험은 자녀의 정치태도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한국의 가구 형태 변화와 정치 이질성

한국은 20세기 후반부터 대가족 구조에서 핵가족 구조로 급격하게 전환되었다(송원숙 2018). 과거에는 조부모·부모·자녀가 같은 가구를 이루며 자연스럽게 정치 담론이 대화 주제로 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1~2인 가구 비중이 증가하고 자녀가 분가하여 핵가족 단위로 축소되면서 가구 내부의 세대 간 정치적 성향 노출도가 감소하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났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 감소는 가구 구성원 간 정치성향 차이를 줄이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한국의 전통적 가족문화는 유교적 효 사상을 기반으로 자녀는 가정 내에서 부모나 조부모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하고 수용하도록 해 왔다(김도경·박영애 2011).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개인주의 가치 확산과 교육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자녀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하는 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송원숙 2018). 한편, 가정 내 정치 대화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부부 동반 선거참여 비율과 부부 정당지지 일치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이재묵 2018). 이는 부부가 정치 담론을 공유함으로써 가구 내 정치성향 동질성이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최근 도시화·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가구·세대 간 정치토론 플랫폼이 전통적 가정 내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족 중심’ 정치사회화 채널이 대체되어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전달했던 정치적 가치관이 약화되는 경향도 포착된다(홍재우 2012).

이와 같이 선행연구가 주로 부모·자녀 간 정치사회화에 국한되거나 조부모·부모·형제자매 등 특정 세대 간 영향력을 부분적으로 확인한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가구 구성에서 정치성향 및 투표참여 의사의 이질성의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특히 핵가족화·개인주의 확산·온라인 플랫폼 확대 등 사회 구조적 변화뿐만 아니라 가구소득을 비

롯한 경제적 요인이 정치적 동질화에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를 동시에 검증한다. 그 결과, 기존의 단일 경로(부모⇒자녀) 모형을 넘어선 ‘가구 단위 포괄적 정치사회화’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Ⅲ. 데이터 및 기초통계 분석

1. 데이터 및 주요 변수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는 가구 단위와 가구원 단위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패널 서베이 데이터가 필요하다. 특히 가구원의 정치성향과 투표참여 의사 관련 문항을 포함해야 하는 제약조건이 있다. 개인 단위 정치성향·투표참여 조사를 상세히 수행하는 설문조사로는 KGSS(Korean General Social Survey)가 있으나, 같은 가구 내 다른 가구원 응답을 수집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는 부적합하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는 자료는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조사·발표하는 재정패널조사(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s: NaSTaB)이다. 재정패널조사는 가계의 조세부담, 복지 혜택, 인구통계적 변화, 자산·소비·소득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조사이다. 또한 가구와 가구원을 동시에 추적조사하는 패널서베이 구조이다. 2008년 1차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일반 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이후 13차(2020년) 조사에서는 표본 탈락을 감안하여 신규 표본을 추가하여 통합표본을 구성하였다. 2025년 6월 현재 17차(2024년) 조사 데이터까지 공개되어 있다.⁴⁾

NaSTaB의 가구원 항목은 가구원 의식조사 설문을 포함하여 사회·정치에 대한 인식, 조세·복지 제도, 납세 관련 태도 등을 다룬다. 특히 정치적 성향, 정치에 대한 관심 그리고 투표참여 정도의 세 가지 변수가 9차(2016년)부터 15차(2022년)까지 매년, 이후에는 2년 단위로 수집되었다(<표 1> 참고). 16차(2023년)에는 해당 설문 항목은 일시 제외되었다.

4) 17차(2024년) 조사데이터는 학술대회용으로 공개되어 있다.

<표 1> NaSTaB에서 정치성향과 투표 관련 변수

구분	항목	조사 wave
정치적 성향 (political ideology)	매우 진보적이다. 다소 진보적이다. 중도적이다. 다소 보수적이다. 매우 보수적이다.	9차(2016) ~ 15차(2022) 17차(2024)
정치에 대한 관심	매우 많다. 다소 많다. 보통이다. 다소 적다 매우 적다.	9차(2016) ~ 15차(2022) 17차(2024)
투표참여 정도 (vote_participation)	적극 참여한다. 참여하려고 노력한다. 잘 참여하지 않는다.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투표권이 없다.	9차(2016) ~ 15차(2022) 17차(2024)

가구 내 가구원의 정치성향 및 투표참여 이질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투표권을 가진 가구원이 최소 2명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분석표본 구축을 위해 <표 2>와 같은 기준을 충족한 가구와 가구원으로 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와 가구원이 2인 이상이라도 투표권자가 1명인 가구는 제외하였다.

<표 2> 실증분석을 위한 분석표본 구축

단계	표본 선택 조건	가구 수	관측치 수
1단계	각 조사시점에서 1인 가구인 경우 삭제	11,141	128,488
2단계	2인 이상 가구 중 가구원 나이가 18세 이하면 삭제 '투표참여 의사' 변수에서 "투표권 없다"를 선택한 가구원 삭제	11,141	104,821
3단계	<표 1>의 political_ideology 변수 응답이 결측치인 경우 삭제	11,040	75,610
4단계	3단계를 통과한 가구 중 political_ideology를 답한 가구원이 2명 이상인 경우만 남긴다.	8,514	62,337

<표 3>은 조사 시점별 분석표본 구성 현황이다. 9차(2016년) 조사에서는 분석대

상 가구가 2,907가구, 투표권 가구원은 4,609명으로 평균 투표권 가구원 수는 2.20명이었다. 13차(2020년) 조사에서는 신규 표본 추가로 가구 수는 4,516가구, 가구원 수는 10,090명으로 증가하여 평균은가구원 수는 2.23명이다. 17차(2024년) 조사에서는 가구 수는 4,832가구, 가구원 수는 10,842명으로 평균 가구원 수는 2.24명이다.

<표 3> 조사시점별 가구와 가구원 수

조사시점	가구 수	가구원 수
9차(2016)	2,097	4,609
10차(2017)	2,310	5,049
11차(2018)	2,446	5,404
12차(2019)	2,503	5,550
13차(2020)	4,516	10,090
14차(2021)	4,580	10,173
15차(2022)	4,744	10,620
17차(2024)	4,832	10,8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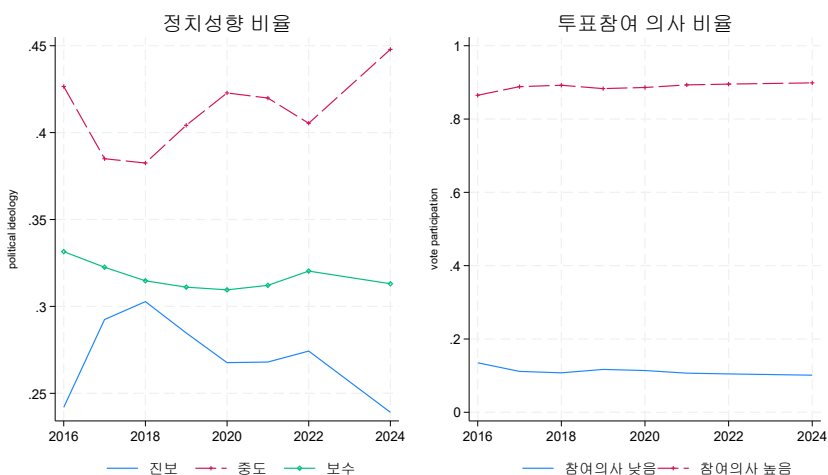
2. 기초 통계분석

<표 1>에서 제시한 가구원의 정치성향(political ideology)과 투표참여 의사(vote_participation) 변수를 다음과 같이 재코딩하여 사용한다. 정치성향 원 변수는 1~2점을 진보(1), 3점을 중도(2), 4~5점을 보수(3)로 재분류하였다. 해당 변수의 평균은 2.04점으로 중도에 근접한다. 투표참여 의사 원 변수(1~4점 척도)는 1~2점을 참여 의사 높음(2) 그리고 3~4점을 참여의사 낮음(1)으로 재분류하였다. 재코딩 변수의 평균은 1.89로 대부분 가구원이 ‘투표참여 의사’가 높은 편임을 나타낸다.

<표 3> 정치성향과 투표참여 의사 변수의 기초통계량

원 변수	재코딩 변수	평균	표준편차
정치성향 (1~5점)	1, 2=진보(1) 3=중도(2) 4, 5=보수(3)	2.04	0.762
투표참여 의사 (1~4점)	1, 2=참여의사 높음(2) 3, 4=참여의사 낮음(1)	1.89	0.311

<그림 1>(왼쪽 패널)에서는 3점 척도 정치성향 변수의 연도별 평균값을 시계열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⁵⁾ ‘중도’로 답변한 가구원 비율이 가장 높으며 해당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반면 ‘진보’로 답변한 가구원 비율은 2018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수’ 응답 비율은 30%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관찰된다.⁶⁾ <그림 1>(오른쪽 패널)에서는 투표참여 의사 변수(높음·낮음)를 연도별 시계열로 보여준다. ‘높음’ 비율은 연도별로 80% 중반대를 꾸준히 유지하며, ‘낮음’ 비율은 10% 중반대를 지속한다.



<그림 1> 정치성향과 투표참여 의사 비율 변화

IV장에서 진행된 실증분석에서는 가구레벨 회귀모형을 사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가구 내 정치성향·투표의사 이질성을 설명하는 가구특성 변수를 NaSTaB에서 추가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가구레벨 변수는 가구주(household head) 특성, 가구 유형 (household type), 사회경제적 특성(socio-economic status: SES)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이와 성별은 정치성향 및 투표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다(Powell & Whitten,1993). 가구주 교육 수준과 결혼상태는 정치참여 수준

5) 각 연도의 평균치에 포함된 사소한 변동을 줄이고 전체적인 추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Lowess (locally weighted scatterplot smoothing) 기법을 활용하여 장기적 추세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6) 모든 가구원의 정치성향이 아니라 실증분석 대상 표본에 해당하는 가구원의 정치성향 비율임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1인 가구가 제외되어 있어서 ‘진보’ 비율이 과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및 이념적 위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Verba et al. 2003; Wolfinger & Rosenstone 1980). 거주 시·도는 지역별 정치 문화와 기존 선거 양상을 반영하기 위해 포함한다. 가구의 자녀 유무는 세대 간 상호작용 정도를 결정하는 변수로 부부 중심 가구에 비해 정치사회화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포함한다.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로 ‘가구소득’은 자원의 분배와 정치참여 동기에 중요한 변수이고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정치적 관심과 참여도가 상승하는 양상이 관찰된다(Brady et al. 1995; Brady et al. 2015). 한국 사회에서 자가 소유일수록 최근 보수화되고 있다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민인식 2022).

<표 4> 가구레벨 설명변수

유형	변수명 및 정의	평균	표준편차
가구주 특성	가구주 나이: 조사 시점 만 나이	58.10	12.70
	가구주 성별: 1=남자, 2=여자	1.10	0.30
	가구주 교육수준: 1=중졸 이하, 2=고졸, 3=전문대졸 이상	1.25	0.75
	가구주 결혼상태: 1=배우자 있음, 2=배우자 없음/미혼	1.09	0.29
가구 유형	거주 시·도: 7개 광역시, 10개 시·도		
	(투표권 있는) 자녀 여부: 1=자녀 있음, 0=자녀 없음	0.32	0.46
사회경제적 특성	가구소득: 연간소득(단위: 만 원)	6,976	5,234
	자가 소유 여부: 1=있음, 0=없음	0.74	0.43

IV. 실증분석 결과

1. 가구 내 이질성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가구 내 정치성향 이질성(within-household ideology heterogeneity)은 동일 가구에 속한 성인 가구원 간 이념 점수의 불일치(dissimilarity)를

평균 절대거리로 계산하여 측정한다. 가구 h 에 속한 가구원 수가 n_h 이고 각 구성원의 이념 점수를 $x_{h,i} \in \{1,2,3\}$ 으로 정의한다(1=진보, 2=중도, 3=보수). 식(1)과 같이 모든 쌍(pair) 간의 절대값 거리(absolute difference) 평균을 계산한다.

$$\text{정치성향 이질성(ideology dissimilarity)} = \frac{1}{\binom{n_h}{2}} \sum_{i < j \leq n_h} |x_{hi} - x_{hj}| \quad \text{식(1)}$$

위 식에서 $\binom{n_h}{2} = \frac{n_h(n_h - 1)}{2}$ 이고 가구 h 내 서로 다른 구성원 쌍의 개수를 의미한다. 가구원이 $n_h = 2$ 명이면 구성원 쌍은 1이 되고 $n_h = 3$ 명이면 구성원 쌍은 3이 된다. 모든 구성원의 이념 점수가 동일한 경우(가령, 모두 진보 또는 모두 보수), $|x_i - x_j| = 0$ 이므로 식(1)의 결과는 0이 된다. 식(1)은 보수·진보인지는 구분하지 않고 단지 구성원 간 이질적·동질적 정도만 측정한다. $n_h = 2$ 인 경우 (보수+진보)이면 dissimilarity=2가 되고 (보수+중도)이면 dissimilarity=1이 된다. (보수+진보)로 구성된 가구가 더 이질적이라는 직관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투표참여 의사의 이질성도 마찬가지로 식(1)의 구조로 계산한다.

<표 5>는 2016~2024년까지 연도별로 계산된 가구레벨 이질성의 기초통계량을 정리한 것이다. 총 28,028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정치성향 이질성=0, 즉 동질적인 가구 수는 14,185가구인 50.6%이다. 최대값=2(가장 이질적인 경우)는 1,666가구인 5.9%이다. 투표참여 의사의 이질성의 경우, 최소값=0인 동질적인 가구는 23,460가구인 83%이다. 가장 이질적인 값=1인 가구는 3,082가구(11%)이다.

<표 5> dissimilarity 기초 통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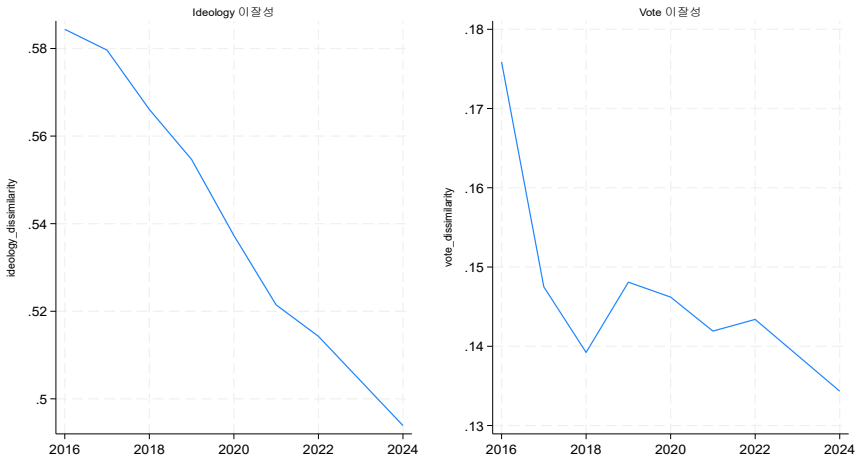
이질성	obs (가구-년도 레벨)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정치성향	28,028	0.53	0.60	0	2
투표참여 의사의	28,028	0.14	0.33	0	1

<그림 2>에서는 연도별 이질성을 측정값을 시계열 그래프로 보여준다.⁷⁾ 정치성

7) <그림 1>과 마찬가지로 Lowess 평활화한 결과를 제시한다.

향 이질성(ideology dissimilarity)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최근 시점에서 가구 내 정치성향 동질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투표참여 의사 이질성 역시 2019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의 정치적 쟁점이 이념적·정당지지 대립으로 귀결되면서 개인의 정파 정체성이 가구 단위에서도 분명해지는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 가구 내 부모-자녀 또는 부부 간 서로 다른 정치적 스펙트럼을 허용하기보다는 같은 정당이나 이념을 지지하도록 ‘동조 압력(conformity pressure)’이 강화되면서 가구 내 정치성향 차이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가구 형태 변화(가령, 부부만으로 구성된 동일 세대 가구, 가구원 수 자체가 감소하는 핵가족화) 역시 이러한 이질성 감소를 촉진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정치성향·투표참여 의사 이질성 변화

<표 6>에서는 가구 구성에 따른 이질성의 연도별 차이를 제시한다. 정치성향 이질성은 예상대로 자녀가 있는 가구($child=1$)에서 자녀가 없는 가구($child=0$)보다 평균 이질성이 일관되게 더 높다. 투표참여 이질성도 마찬가지로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평균 이질성이 더 크게 나타난다. 이 결과는 핵가족화로 인해 가구에 다세대 동거 비율이 낮아지면 서로 다른 정치적 관점을 가진 구성원 수가 감소하여 이질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가설과 부합한다. 즉, 세대 간 동거 감소가 가구 내 정치성향 및

투표참여 의사 이질성 감소로 이어졌음을 지지하는 실증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표 6> 자녀 여부에 따른 이질성 차이

	정치성향 이질성		투표참여 의사 이질성	
	child=0	child=1	child=0	child=1
2016	0.52	0.76	0.14	0.25
2017	0.51	0.79	0.10	0.20
2018	0.49	0.77	0.11	0.22
2019	0.49	0.68	0.11	0.20
2020	0.54	0.68	0.14	0.21
2021	0.45	0.64	0.11	0.16
2022	0.46	0.63	0.12	0.19
2024	0.46	0.58	0.11	0.19

2. 토빗모형 추정 결과

가구레벨 변수(<표 4> 참고)가 정치성향과 투표참여 이질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식(2)와 같이 패널 토빗모형(panel Tobit model)을 설정한다. $dissim^*$ 는 잠재적 종속변수(latent dependent variable)이고, 우리는 실제로 이 값이 0보다 클 때만 양의 값으로 관찰할 수 있고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은 모두 0으로 관찰된다. 따라서 좌측 절단(left-censored) 토빗모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dissim_{it}^* = \alpha + \beta X_{it} + u_i + \mu_t + e_{it} \tag{식(2)}$$

$$dissim_{it} = dissim_{it}^*, \quad dissim_{it}^* > 0$$

$$dissim_{it} = 0, \quad dissim_{it}^* \leq 0$$

$$u_i \sim N(0, \sigma_u^2), \quad e_{it} \sim N(0, \sigma_e^2), \quad \mu_t : \text{연도 고정효과}$$

동일한 가구 i 가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점을 고려하여 패널 확률효과(random effects) 모형을 설정한다. 시간불변 가구특성(time-invariant household characteristics)

은 확률변수 u_i 로 포함한다. u_i 를 포함하면 $cov(dissim_{it}^*, dissim_{it-1}^*) \neq 0$ 임을 보일 수 있다. 즉, 가구 내에서 정치성향·투표참여 이질성은 과거 시점에 의존하는 경향을 포착할 수 있다. 개인의 정치성향이 시간에 따라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가정은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표 7> 패널 토빗모형 추정결과

	정치성향 이질성 (Model 1)	투표참여 의사 이질성 (Model 2)
<i>hage</i> : 가구주 연령	0.014*** (0.005)	-0.011*** (0.001)
<i>hage</i> ² : 가구주 연령 제곱	-0.0001*** (0.000)	
<i>hedu2</i> : 고졸	0.080*** (0.027)	0.039 (0.045)
<i>hedu3</i> : 전문대졸 이상	0.042 (0.029)	-0.124 (0.050)
<i>hgen2</i> : 여성	-0.081** (0.033)	-0.018 (0.055)
<i>hmar2</i> : 배우자 없음	0.141*** (0.034)	0.107* (0.056)
<i>child1</i> : 자녀 있음	0.424*** (0.020)	0.649*** (0.034)
$\log(hincome)$	0.029** (0.013)	-0.086*** (0.023)
<i>own1</i> : 자가	0.031 (0.019)	-0.053* (0.032)
거주지역 시·도 더미변수	포함됨	포함됨
연도 더미 변수	포함됨	포함됨
σ_u	0.398	0.659
σ_e	0.992	1.196
ρ	0.138	0.233
$\log L$	-29,984	-14,805
the number of households	8,468	8,471
Uncensored obs	13,661	4,503
Left-censored obs	14,012	23,170
Total obs	27,673	27,673

주1: 괄호 안은 추정계수의 표준오차를 의미함.

주2: ***, **, *는 각각 1%, 5% 그리고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주3: 시·도변수=제주인 경우는 표본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추정모형에서 제외함.

관찰되지 않은 가구특성 u_i 의 표준편차 추정치는 0.398(Model 1), 0.659(Model 2)로 0과 유의하게 다르다. 가구 내 시점 간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ρ 식(3)은 0.138~0.233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양의 상관관계는 가구 내 정치성향과 투표의사 이질성이 시간에 따라 지속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corr(dissim_{it}, dissim_{it-1}) = \rho = \frac{\sigma_u^2}{\sigma_u^2 + \sigma_e^2} \quad \text{식(3)}$$

토빗모형을 추정함에 있어 관찰되지 않은(time-invariant and unobserved) 가구 특성 확률효과를 포함하는 모형은 pooled 토빗모형(u_i 를 포함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통계적으로 적절하다. 식(4)의 귀무가설은 LR(Likelihood Ratio) 검정에 의해 기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⁸⁾

$$H_0 : var(u_i) = \sigma_u^2 = 0 \quad \text{식(4)}$$

가구주 연령(*hage*)은 두 모형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가구주 연령이 높다는 것은 구성원 연령 역시 높다고 예상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가구를 예로 들면, 자녀가 10대 후반~20대 초반 시점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형성 중이고, 부모는 이미 중장년층으로 세대론에 기반한 정치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자녀 성향은 부모 영향을 더 크게 받아서 동질성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가구주 연령이 50대 시점이면 자녀도 30대 초반이 되면서 직장·사회 경험을 통해 가치관이 고정된다. 따라서 가구 내 이질성은 점차 증가하게 된다. 부모가 노년층이 되면 자녀와 공통의 사회적·경제적 맥락에 참여하게 되어 이전 시점보다 정치 관점이 수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Model 1에서 *hage* 변수는 역U자형 관계로 나타난다. 정치성향은 부모 나이가 52세 시점까지는 이질성이 점차 증가하다가 그 이후 연령에서는 다시 이질성이 감소하는 형태로 추정된다 (<그림 3> 참고). 그러나 Model 2(투표의사 이질성)에서는

8) Model 1에서 LR 검정통계량은 521.72이고 p 값은 0.000이다. Model 2에서 LR 검정통계량은 541.75이고 p 값은 0.000이다.

$hage^2$ 계수가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hage^2$ 변수를 제외한 모형을 추정한다. 음(-)의 추정계수를 해석하면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투표참여 의사 이질성은 감소한다고 해석한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지면 투표참여 성향이 높아진다(Powell & Whitten 1993). 고령가구일수록 가구 구성원(자녀 포함)이 ‘투표에 적극 참여’하는 성향을 공유한다고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투표참여 이질성은 감소하게 된다.

가구주 교육수준($hedu$)이 ‘전문대졸 이상’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즉 고졸그룹에서는 이질성이 다른 그룹(중졸, 전문대졸 이상)보다 유의하게 높지만 ‘전문대졸’과 ‘중졸 이하’ 그룹 간 정치성향·투표의사 이질성의 차이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부모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자녀 간 정치·사회적 토론과 경험 공유가 활발하여 가구 내 구성원 간 성향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예상된다.

가구주 성별($hgen$: 여성) 역시 정치성향 이질성 모형에서는 음(-)으로 유의하다. 즉 가구주가 여성이면 가구 내 정치성향 이질성이 감소한다. 이는 여성 가구주가 가정 내 정치담론을 조정하거나 정치적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반영한다(김도경·박영애 2011). 배우자 여부 변수 역시 양(+)으로 유의하다. 즉, 배우자가 없는 가구에서 정치성향·투표의사 이질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자녀 변수는 예상대로 양(+)으로 유의하다.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에 비해 자녀가 있는 다세대 가구에서 세대 차이로 인해 다양한 정치관이 공존하고 따라서 정치성향 이질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가구소득($hincome$) 변수이다. 가구소득이 정치성향·투표참여 이질성에 미치는 영향은 (+)과 (-)으로 서로 다르게 추정된다. 고소득층 가구일수록 정치성향 이질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투표참여에 대해서는 지지 성향과 무관하게 집안 식구들이 모두 비슷하게 수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가구의 경제적 여력이 많을수록 자녀는 ‘다양한 정치 스펙트럼’을 직접 경험·수용할 기회가 많아지고 따라서 가구 전체로 보면 이념적 이질성도 함께 커질 경향성이 있다. 고소득층일수록 ‘투표참여’ 자체를 문화적 규범(civic norm)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세금, 재정, 규제 정책에 대한 즉각적인 이해관계가 고소득층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어느 정당 후보가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더 잘 대변해 줄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적극적 투표참여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림 3>에서는 여타 통제변수를 평균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가구주 연령과 정치적 성향과 투표참여 의사 이질성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토빗모형에서는 예측된 이질성에 해당하는 $E(y)$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식(5)에서 $\Phi()$ 와

$\phi(\cdot)$ 는 각각 표준정규분포의 CDF와 PDF를 의미한다. 식(5)의 결과는 $E(y^*|y^* \leq 0, x) = 0$ 을 대입하면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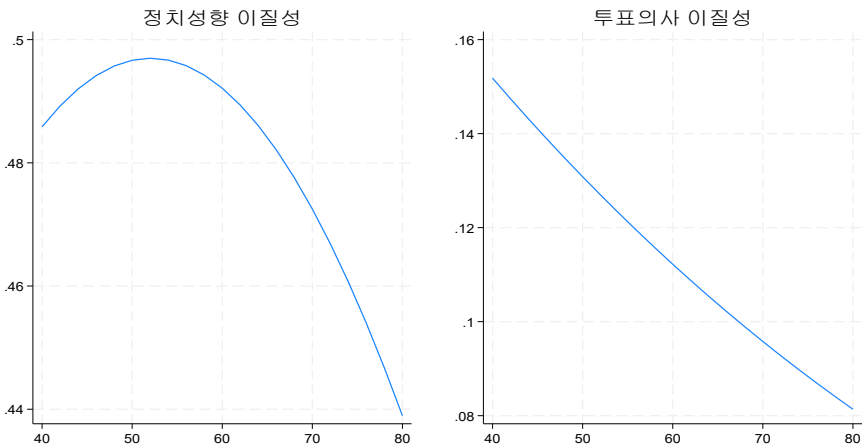
$$E(y) = \Pr(y^* > 0|x)E(y^*|y^* > 0, x) + \Pr(y^* \leq 0|x)E(y^*|y^* \leq 0, x)$$

$$\Rightarrow E(y) = \Pr(y^* > 0|x)E(y^*|y^* > 0, x) = \Phi(z)x'\beta + \sigma_e\phi(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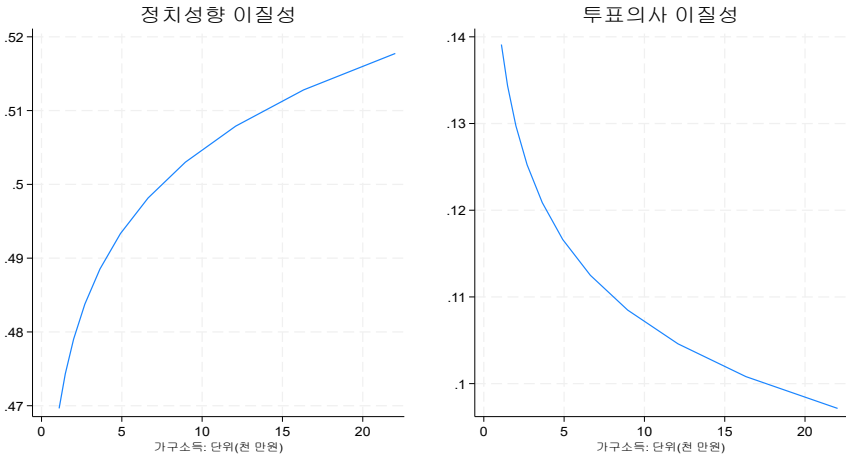
where $z \equiv \frac{x'\beta}{\sigma_e}$ 식(5)

<그림 3>을 살펴보면 가구주 연령이 52세 시점까지는 정치성향 이질성이 점차 증가한다. 그러나 가구주 연령이 그 이상으로 고령화될수록 이질성이 점차 감소하게 된다. 투표의사 이질성의 경우에는 <표 7> 추정 결과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hage* 변수의 계수가 음(-)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질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그림 4>는 가구소득이 이질성에 미치는 영향을 시각화한 것이다. 고소득층일수록 정치성향 이질성은 증가한다. 다만 소득이 높아질수록 이질성 증가는 완만하게 나타난다. 반대로 투표의사 이질성은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낮아진다. 고소득 가구일수록 투표참여 의사에 대한 동질성이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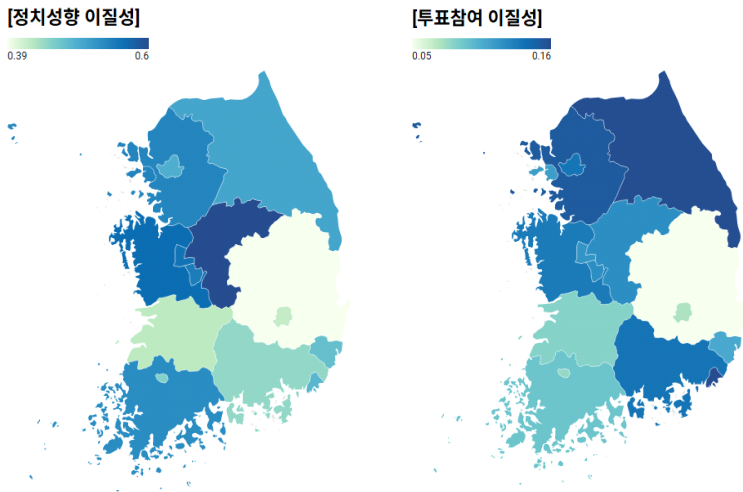


<그림 3> 가구주 연령과 예측된 이질성



<그림 4> 가구소득과 예측된 이질성

앞서 논의하였듯이 가구의 정치성향은 가정 내 역학관계뿐 아니라 거주 시·도에 따라 이념 또는 투표참여 이질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식(2)에서는 가구의 거주 시·도를 더미변수로 포함하였다. 거주 시·도별 이질성 차이를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다른 X 변수를 모두 평균에서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질성 예측값을 제시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5> 참고).



<그림 5> 시·도별 이질성 시각화

주: '제주'는 표본이 적은 관계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경상북도’는 공통적으로 정치성향과 투표참여 동질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정치성향 이질성은 충북에서 가장 높게 추정된다. 투표참여 이질성은 강원, 경기, 부산에서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관찰가능한 가구 특성을 통제된 상태에서 계산된 ‘지역레벨 이질성’은 지역 인구구성과 사회경제적 차이를 걷어낸 뒤에도 남아 있는 순(純)지역 효과를 보여준다. 영남(특히 경북)에서 동질성이 가장 높다는 것은 보수정당 우위를 유지해 온 지역 정치환경이 가구 내부에서도 동일한 이념과 투표 행태로의 수렴을 촉진해 왔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지역별 차이는 각 시·도의 정치문화와 선거역사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NaSTaB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2016~2024년까지 한국 가구 내 정치성향·투표참여 의사 이질성이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구특성 변수가 이러한 이질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이질성은, 가구원 간 이념·투표 태도의 절대적 차이를 평균화한 지표로 산출되며, 두 가지 핵심 지표 모두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나타냈다. 특히 가구 내 투표참여 의사 이질성은 2019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24년에는 10% 내로 낮아졌다. 이는 ‘전 세대’가 투표 성향에 있어 높은 동질성을 보여준다는 의미로, 가족 단위에서 투표 자체를 문화적 규범(civic norm)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화되었음을 시사한다.

패널 토빗모형 분석결과 첫째, 가구주 연령은 정치성향 이질성에 역U자형 영향을 미쳤다. 50대 중년 가구주가 이끄는 가구에서는 부모와 20~30대 자녀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로 이질성이 증가하지만, 가구주가 50대를 넘어서면서 자녀 세대도 성인이 되어 사회 경험을 거치고 공통 관심사를 형성하여 가구 내 이념적 동질성이 다시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투표참여 의사 이질성은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꾸준히 감소하는데, 이는 나이가 들수록 투표참여율이 전 세대에 걸쳐 높아지고 가구원 다수가 ‘투표 의사 높음’으로 수렴하기 때문이다.

둘째, 가구소득은 정치성향과 투표참여 이질성에 상반된 효과를 보였다. 소득이 높을수록 다양한 정치·사회적 경험을 접할 기회가 많아져 정치성향 이질성이 완만

하지만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반면 투표참여 의사 이질성은 소득 증가에 따라 오히려 하락하였다. 이를 통해 고소득 가구의 경우 ‘투표 자체’가 가족 내에서 중요한 규범으로 자리잡고,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가구 구성원 다수가 투표참여를 중시하는 경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셋째, 자녀 유무는 두 이질성 모두를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세대가 공존하는 가구일수록 부모·자녀 간 세대 차이가 여전히 뚜렷하여, 부부 가구에 비해 이질성이 높았다. 이는 핵가족화·저출산으로 인해 세대 간 동거 비율이 감소하면서 동거 가구원 비율이 낮을수록 정치성향과 투표 의사 모두에서 동질화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넷째, 가구주 성별, 교육 수준, 배우자 유무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도 유의미한 역할을 하였다.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정치성향 이질성이 감소하였고, 배우자가 없는 가구는 이질성이 오히려 높았다. 이는 배우자 간 ‘동조 압력(conformity pressure)’ 및 여성 주도의 가정 내 일상적 대화가 이념적 일치를 촉진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가구 내 정치성향·투표참여 이질성이 세대 간 상호작용과 가구 특성(핵가족화, 가구소득, 가구주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정리할 수 있다. 가구 내 정치 이질성은 단순히 ‘이질적일수록 좋다/나쁘다’로 판단하기 어렵다. 오히려 ‘어떻게 발생했는지’와 ‘어떤 맥락에서 유지·축소되는지’를 파악해야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핵가족화·온라인 플랫폼 확대·경제적 불안정성 등 다양한 요인이 가구 내부의 정치성향·투표의사 이질성에 상반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정책 수립자는 ‘건강한 이질성(healthy heterogeneity)’이 유지되도록 가족과 커뮤니티를 잇는 토론 환경을 마련하고, 동시에 ‘소극적 동질화’로 인해 참여 자체가 저해되지 않도록 경제적 장벽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실증 데이터인 재정패널 데이터에는 가구 내 ‘정치 대화 빈도’나 ‘갈등 경험’과 같이 후속 정치적 행위·정치효능감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이 충분치 않다는 제약이 있다. 가구 내 이질성을 양적으로 측정하는 범위를 넘어 후속 연구에서는 ‘가구 내 이질성 → 정치 대화 및 갈등 경험 → 정치효능감·참여행동’으로 이어지는 인과 경로를 체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설문 문항을 재정패널의 부가조사나 추가 모듈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도경·박영애. 2011. “가족 내에서의 정치사회화에 관한 연구: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공공정책연구》 28(2): 37-58.
- 민인식. 2022. “주택소유 유형이 정치적 성향과 투표참여 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할 잠재 성장 모형의 활용.” 《한국정책학회보》 31(1): 231-253.
- 송원숙. 2018. “가족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정치사회화 차이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9(2): 69-96.
- 송원숙. 2019. “청소년의 정치사회적 역량을 높여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가족, 친구, 미디어의 효과를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53(53): 45-83.
- 이재묵. 2018. “부모의 출신지와 자녀의 정치적 지역 연고” 《미래정치연구》 8(1): 61-86.
- 홍재우. 2012. “아버지와 나는 다르다? 세대정치와 정치사회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타난 대학생의 가족 내 정치사회화의 영향력.” 《21세기 정치학회보》 22(3): 180-211.
- Beck, P.A. and M.K. Jennings. 1982. “Pathways to Particip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6(1): 94-108.
- Brady, H.E., K.L. Schlozman, and K.L. Verba. S. 1995. “Beyond SES: A Resource Model of Political Particip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9(2): 271-294.
- Brady, H.E., K.L. Schlozman, and S. Verba. 2015. “Political Mobility and Political Reproductio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57(1): 149-173.
- Clark, G. and N. Cummins. 2014. “Surnames and Social Mobility in England, 1170-2012.” *Human Nature* 25(4): 517-537.
- Gidengil, E., L.Tarkiainen, H. Wass, and P. Martikainen. 2017. “Turnout and Education: Is Education Proxying for Pre-Adult Experiences within the Family?” *Political Science Research and Methods* 7(2): 1-17.
- Huckfeldt, R. and J. Sprague. 1995. *Citizens, Politics and Social Communication: Information and Influence in an Election Campaig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yman, H.H. 1959. *Political Socialization: A Study in the Psychology of Political Behavior*. New York: Free Press.
- Jennings, M.K. and R.G. Niemi. 1968. "The Transmission of Political Values from Parent to Child."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2(1): 169-184.
- Jennings, M.K., L. Stoker, and J. Bowers. 2009. "Politics across Generations: Family Transmission Reexamined." *The Journal of Politics* 71(3): 782-799.
- Lahtinen, H., J. Erola, and H. Wass. 2019. "Sibling Similarities and the Importance of Parental Socioeconomic Position in Electoral Participation." *Social Forces* 98(2): 702-724.
- Lindgren, K.-O. and S. Oskarsson. 2022. "The Perpetuity of the Past: Transmission of Political Inequality across Multiple Genera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17(3): 1004-1018.
- Mare, R.D. 2011. "A Multigenerational View of Inequality." *Demography* 48(1): 1-23.
- Muxel, A. 2018. "La Politique Dans la Chaîne des Générations: Quelle Place et Quelle Transmission?" *Revue de l'OFCE* 156: 12-58.
- Mutz, Diana C. 2002. "The Consequences of Cross-Cutting Social Networks for Political Particip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6(4): 838-855.
- Powell, G.B., Jr. and G.D. Whitten. 1993. "A Cross-National Analysis of Economic Voting: Taking Account of the Political Contex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7(2): 391-414.
- Putnam, R.D. 2015. *Our Kids: The American Dream in Crisis*. Simon & Schuster.
- Verba, Sidney, Nancy Burns, and Kay L. Schlozman. 2003. "Unequal at the Starting Line: Creating Participatory Inequalities across Generations and among Groups." *The American Sociologist* 34(1-2): 45-69.
- Wike, R., M. Fagan, C. Huang, L. Clancy, and J. Lippert. 2025. *Economic Inequality Seen as Major Challenge Around the World*, Pew Research Center.
- Wolfinger, R.E. and S.J. Rosenstone. 1980. *Who Votes?* Yale University Press.

<접수 2025.06.09; 수정 2025.07.07; 게재확정 2025.07.11>

Within-Household Heterogeneity in Political Ideology and Voting Participation

Insik Min

(Kyung Hee University)

This study employs the NaSTaB panel data from 2016 to 2024 to investigate within-household heterogeneity in political ideology and voting participation in Korea, as well as how household-level characteristics affect these measures. We define ideological heterogeneity and voting heterogeneity as the mean absolute differences in household members' self-reported ideology and willingness to vote. Both indicators show a declining trend over time. Using a panel Tobit model, we find that the household head's age has an inverted U-shaped effect on ideological heterogeneity and a monotonically negative effect on voting heterogeneity. Household income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ideological heterogeneity but negatively with voting heterogeneity. The presence of children significantly increases both forms of heterogeneity. Additionally, the household head's gender, education level, and marital status exert significant impacts. The shift toward nuclear families and reduced intergenerational co-residence has accelerated within-household homogenization, despite parallel growth in online media usage and economic insecurity. Policymakers could foster environments—both within families and communities—that encourage “healthy heterogeneity,” while reducing economic barriers to civic engagement, to strengthen intergenerational political and social cohesion in Korea.

Key words: within-household political ideology, political socialization, voting participation heterogeneity, panel tobit model